

빨라진 생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인기

(Drive Through, 승차구매)

광주지역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등 매출 급상승 편의점·슈퍼도 진출... 출·퇴근길 직장인 등 각광

운전 중인 자동차 안에 앉아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제품을 건네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승차구매)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 지역에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 늘어나면서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로 확산하는 추세다.

8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 부문에서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2010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광주 지역에서만 총 9개 매장을 모두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도 광주 지역 총 32개 매장 중 주월점과 운암점 2곳을, KFC는 총 4개 매장 가운데 용봉점 한 곳을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대부분 일반 매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4시간 운영이 원칙이어서 전체 매출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수익이 일반매장을 포함한 매장 전체 수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커피전문점도 드라이브 스루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엔젤리너스커피는 2013년 커피전문점 업계 처음으로 광천동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연 이후 운암점을 개설하는 등 매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도 금호, 신가, 용두동에 잇따라 문을 열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경우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탓에 좌석 회전율이 높아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신속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도 맞아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교통의 발달과 개인별 차량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중심으로 한 매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편의점과 대형슈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편의점 씨유(CU)가 지난 2013년 8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SK흑석동주유소 내에 국내 1호 드라이브 스루 편의점을 열고 일반 편의점과 달리

삼각김밥·출 김밥·샌드위치를 판매한 데 이어 지금은 유제품·음료 등 세트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롯데슈퍼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서울 송파구 가락점에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고서 상품이 준비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점포로 차를 몰고 가면 직원이 직접 상품을 차량에 실어주는 방식이다. 패스트푸드점 세트 메뉴에 익숙한 소비자를 공략하고 메뉴 선택을 위한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신세계에서 14일까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2015 광주·전남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8일 오전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개막했다. 김영환(오른쪽에서 세번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6.21 (-24.08)
-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2)
- ▼ 코스닥 726.22 (-3.42)
- ▲ 환율 (USD) 1136.70원 (+6.50)



이상훈 효성 부회장(오른쪽)이 8일 '2015 효성·전북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에 다 가능 탄소섬유 휠체어를 출품해 대상을 받은 구드미대 임윤택 대표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전북도 공동... 18개팀 포상

효성이 8일 전북도청에서 이상훈 효성 부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효성·전북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다기능 탄소섬유 휠체어'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캡슐 빙수', '필터교체형 한지마스크'가 분야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효성은 탄소, 농생명·식품, 전통문화·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산업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각 분야별 5팀씩 15개 팀과 전국대회 본선 선발 팀 3개 팀 등 총 18개 팀을 선정해 1억 4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탄소산업 분야 대상을 수상한 '다기능

탄소섬유 휠체어'는 탄소섬유의 특성을 살려 기존 휠체어 대비 무게가 절반에 불과하다.

이상훈 부회장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어 청년, 혁신 사업가 등이 정착하기 어려웠던 전북에서 창업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과 전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에서의 자금을 물론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을 지원한다. 효성은 특히 탄소 관련 기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효성 전주공장 부지에 완공된 탄소특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호반건설 하청대금 제멋대로 깎았다가 적발

공정위,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호반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고 임차금액을 깎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8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고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원으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2011년 8월 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최저가 입찰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임

차 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또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분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 가계대출 급증... 8조1000억 증가

저금리·주택거래 호조 원인

지난 6월 한 달간 은행권 가계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대로 떨어진 가운데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한 달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대출도 각각 1000억원씩 늘었으며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도 각각 17조7000억원과 16조 6000억원으로 33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저금리와 함께 주택거래

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6월말 현재 439조6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6조8000억원 늘어 5월(6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1~6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32조7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는 올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의 가계 주택대출수요 지수(전망치)는 28로, 전분기(31)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6월말 현재 잔액이 154조2000억원으로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세 일 글

"세계 최고 물류·산업도시 성장 노력"

권 오 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과 더불어 지역 상생발전을 최우선 전략과제로 추진해 광양만권이 세계 최고수준의 물류·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취임한 권오봉(5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임 청장은 "광양만권은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서 국가 산업·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 동력이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장흥 출신인 신임 권 청장은 1983년 제26기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광역

대산프리모가발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에디터 방문해서면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량하고 이쁠다운 배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